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코퍼스에 기반한 '바람'의 한영 연어 분석



2011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노 현 석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코퍼스에 기반한 '바람'의 한영 연어 분석

지도교수 윤 희 수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노 현 석

노현석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8월



주심 영 어 학 박 사 전 춘 배 (인)

위원 언 어 학 박 사 김 은 일 (인)

위원 영 문 학 박 사 윤 희 수 (인)

차 례

Abstract	v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과제	4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5
1. 코퍼스언어학	5
2. 어휘력과 언어능력의 관계	6
3. 교착어와 굴절어의 개념	8
4. 선행연구	8
III. 연구 방법	12
1. 연구도구	12
1.1 카이스트 콘코던서(KAIST Concordancer)	12
1.2 영어 코퍼스	14
2. 자료 수집 및 절차	16
2.1 한글색인의 품사별 데이터 수집 및 절차	16

2.2 영어 코퍼스의 품사별 데이터 수집 및 절차	17
 IV. 연구 결과 분석	19
1. 형용사-명사 관계 데이터 분석	19
2. 명사-명사 관계 데이터 분석	27
3. 명사-동사 관계 데이터 분석	32
4. 동사-부사 관계 데이터 분석	36
 V. 결론 및 제언	41
1. 결론	41
2. 제언	43
 참고 문헌	44

그림 차례

<그림 1> KAIST Concordancer Program 홈페이지	12
<그림 2> KAIST Concordancer Pprogram 기타 기능	13
<그림 3> Corpus Concordance English 홈페이지	15
<그림 4> KAIST Concordancer '바람이' 검색 결과	16
<그림 5> KAIST Concordancer 기타메뉴 복합명사 따라가기	17
<그림 6> Corpus Concordance English 'wind' 검색결과	18
<그림 7> 형용사 빈도별 분석	20
<그림 8> 형용사 타입별 분석	21
<그림 9> 온도 형용사 코퍼스별 분석	23
<그림 10> 세기 형용사 코퍼스별 분석	24
<그림 11> 느낌 형용사 코퍼스별 분석	25
<그림 12> 명사 빈도-타입 분석	27
<그림 13> 동사 코퍼스별 분석	32
<그림 14> 부사-형용사 타입 분석	37
<그림 15> 부사 타입별 분석	39

표 차례

[표 1] 형용사 빈도 및 타입별 분석	19
[표 2] 한글색인 및 영어 코퍼스에서 추출된 형용사 표본	22
[표 3] 한글색인 및 영어 코퍼스에서 추출된 명사 표본	28
[표 4] 명사 빈도 및 타입별 분석	28
[표 5] 한글색인 및 영어 코퍼스에서 추출된 동사 표본	33
[표 6] 부사 빈도 및 타입별 분석	36
[표 7] 한글색인 및 영어 코퍼스에서 추출된 부사 표본	38



A corpus-based analysis of Korean-English collocation
with the word 'Baram' in Korean

Noh, Hyun-Seo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by comparing the collocation results of adjectives, nouns, verbs, and adverbs extracted from KAIST Concordancer with the Korean search term 'Baram'(which means wind in English) with those of English Concordancer provided by a website, www.lextutor.ca with the use of English search term 'wi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analyzing collocation patterns between adjectives and the noun, I learned that frequency of adjectives of English was lower than that of Korean but the number of adjective types of English was greater than that of Korean, especially with the high frequency of strength-related adjectives. The number of temperature & feeling-related adjectives of English was the same as Korean. There were much more feeling-related adjectives in Korean than English. From this result, I discovered that there existed different views between these two languages regarding the same natural phenomenon called 'Baram'.

Second, after analyzing collocation patterns between nouns and the noun, although the gap in the frequency of the nouns collected from two corpora was huge, the number of the discovered noun types was not big. There were four kinds of nouns in English which were frequently used with the word 'wind' in the field of seasons, directions, and time. Other Korean nouns except these three kinds of nouns were expressed in different ways such as particle + prepositional phrases, nouns with different spellings and adverbs. In case of nouns with different spellings, I found out limitations in corpus data and I also found many other words meaning 'wind' in English.

Third, after analyzing collocation patterns between verbs and the noun, the bonding of the noun and verbs was weaker than that of adjectives and the noun, which means people can choose verbs which go with the noun 'wind' more freely than adjectives. In case a Korean verb corresponds to several English verbs, the verb can be expressed in a way of be+adjective+noun.

Lastly, after analyzing collocation patterns between adverbs and the noun, since adverbs have no direct relation to the noun, adverbs are drawn with a fixed verb 'blow' which is most frequently used with the word 'wind'. Collected adverbs we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including temperature, strength, feeling, and time. It turned out that the binding force between adverbs and the fixed verb was much weaker than that of between adjectives and the noun. Strength-related adverbs were most frequently used in both languages. Discovered patterns of adverbs were more diverse since they were accessory factors in the sentences as we know. The first reason why few adverbs were found in English corpus was that adjectives in English were translated into adverbs in Korean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The second reason was that many prepositional phrases in English could be put into adverbs in Korean in transl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학교영어교육에 있어서 말하기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즉, 표현하는 영어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보니 말하기와 더불어 영어 글쓰기의 중요성 또한 자연스레 커지고 있다. 영어학습에 있어서 풍부한 어휘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휘교육은 아직까지, 기존에 해오던 단어의 개별적 암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어민 화자에 가깝게 영어로 글을 써내기 위해서는 각 어휘 간의 어울림을 아는 연어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단어 간의 어울림이 자연스러운 글을 쓰려면 연어학습을 통한 많은 언어자료의 입력이 필요하다.

훌륭한 문법실력과 개별어휘 능력을 가지고도 실제 발화 상황에서는 제대로 맞는 어휘 표현을 구사하지 못함은 어떤 어휘가 다른 어휘와 어떻게 결합하여 사용되는지에 관한 연어능력의 부족 때문이다(Hoey, 1991; Sinclair 1991; Lewis 1997; Hill 2000). 언어 교육에 있어서 연어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연어란 명사를 기준으로 그와 자주 어울려 다니는 형용사, 명사, 부사, 동사가 이루는 말뭉치를 뜻한다. 어휘를 학습할 때 함께 쓰이는 어휘들을 한 번에 같이 학습해야 원어민 화자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명사를 중심으로 그와 습관적으로 어울리는 연어현상을 신문지상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00장관은 지

난달부터 이번 결정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라는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입장이라는 명사를 중심으로 거듭 (ad) + 반대 (@ or N) + 입장 (N) + 밝히다 (V) 로 ad + @/N + N + V 구조의 말뭉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문을 몇 개 더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부사 (ad)	수식 (@ or N)	중심명사 (N)	동사 (V)
거듭	반대	입장	밝히다
계속해서	미온적인	태도	보이다
어렵게	독점	인터뷰	성사되다
서둘러	공항	입국장	빠져나오다
예상보다	정치적	논란	커지다
거듭	불편한	심기	드러내다
다시금	입장	차이	확인하다
조금씩	최악의	상황	벗어나다

한국어에 명사는 무수히 많다. 한국어에서 어떤 명사를 택하든 그 명사가 취하는 언어관계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구조를 지닌다.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자는 '바람'이라는 명사를 택하기로 한다. 바람을 연구대상 명사로 택한 이유는 '바람'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날씨관련 어휘 중 하나이므로 한국어 코퍼스인 한글색인(KAIST Concordancer)에서나 영어 코퍼스에서도 '바람'의 영어 대응어인 'wind'의 다빈도 출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한글색인에서 명사 '바람'을 추출 할 때 영어의 'wind'에 해당하는 '바람'과는 그 의미가 다른 '춤바람', '개혁의 바람', '정리해고 바람'등은 제외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KAIST에서 구축한 한국어 코퍼스(이하 한글색인)와 영어 코퍼스를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컴퓨터 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더불어 코퍼스언어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코퍼스는 작문교육의 훌륭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Yoon(2005)의 말에 따르면, 오늘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코퍼스의 가치가 널리 인식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EFL 상황에서는 실제로 코퍼스를 적용하여 제2

언어를 지도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코퍼스를 이용하면 보다 체계적이고 정량적인 언어분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그간 이루어진 많은 코퍼스 관련 연구들은 목표어인 영어분석에만 과다하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어 어휘 코퍼스 분석을 통해 추출한 결과를 영어 코퍼스와 비교분석 함으로써 국어와 영어가 언어어휘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한글색인(KAIST Concordancer)에서 검색한 '바람'이라는 명사가 이루는 언어관계를 영어 코퍼스 속에서의 'wind' 명사가 이루는 언어관계랑 비교할 때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라는 연구과제를 설정한다.

우리는 한국인이다. 한국에서 영어공부를 하는 EFL상황에서의 영어는 지리적, 태생적 한계로 인해 원어민과 똑같이 사고하고 똑같은 표현을 구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어의 언어는 국어의 언어랑 표현 방식이 다르고 선호되어지는 결합어휘의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명사 '바람'을 통해 우리말에 많이 쓰이는 한국인의 어휘 결합 선호도를 알아보고, 추출된 한국어 표현들을 영어로 가장 근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어에 기반해서 쓴 영어가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고 표현적으로 크게 어색하지 않다면 그 표현은 사용에 있어 문제가 없다. 우리는 영어를 도구로써 사용하면 된다. 우리의 영어가 원어민 화자의 영어와 완전히 같아질 필요는 없으며, 또한 같아지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슷하게만 접근해도 현재 우리 학생들의 망가진 문법과 표현 수준에 비하면 훌륭한 발전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금까지의 코퍼스 관련 연구에 있어서, 모국어인 한국어를 중심에 두고, 한국어에 나타난 언어결과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영어 표현을 찾으려고 시도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과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과제는 아래와 같다.

한글색인(KAIST Concordancer)에서 검색한 '바람'이라는 명사가 이루는 언어관계를 영어 코퍼스 속에서의 'wind' 명사가 이루는 언어관계랑 비교할 때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바람'이라는 한 단어에 대한 연구라는 점이다.

수많은 한국어 명사 중에 '바람'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의존해 결론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한국어 명사 전체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형용사와 부사의 분류기준의 모호함이다.

형용사나 부사를 몇 종류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는데 그 분석기준이 연구자의 한국인 원어민으로서의 직관에 의존한 분류라는 점이다. 국어를 전공한 사람의 전문적 분류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확한 분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코퍼스언어학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우리나라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영미권 사람들이나 '당신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 보면 답변은 각양각색이다. 자주 쓰는 단어의 빈도라는 개념은 아무리 원어민 이라고 할지라도 직관을 가지고서는 답을 하기가 어렵다. 언어연구에서 빈도수가 가지는 역할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옛날에는 위와 같은 질문에 답변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겠지만, 현대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눈부시게 발전된 컴퓨터를 언어학에 접목시켜서 탄생한 것이 바로 코퍼스라는 개념이다. 현재 매우 다양한 코퍼스가 구축되어 있으며 어떤 코퍼스로 접근 하느냐에 따라 위의 질문의 답변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코퍼스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최빈도수의 단어는 대개 상위 10위권 내에서는 거의 일치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정보는 외국어 학습자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빈도어를 먼저 학습함으로써 언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코퍼스'란 간단히 말하면 언어의 모듬(a collection of text)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코퍼스를 '말모듬' 또는 '말뭉치'라고 일컫기도 한다. 현대적 의미의 코퍼스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형태의 텍스트로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권혁승, 2008).

코퍼스 기반 분석이란 구어 및 문어 자료로 구축된 코퍼스를 컴퓨터를

통해 여러 기준으로 계산해 내는 것으로 언어와 관련된 자료를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한다(Biber, Conrad, & Reppen, 1998). 이 방법은 연구자의 직관이나 판단, 그리고 제한된 자료와 분석 시간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제한점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언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교재 개발도 교수법에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O'Keefee, McCarthy, & Cater, 2007).

2. 어휘력과 언어능력의 관계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어휘를 많이 알수록 도움이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우리나라 학교 영어교육을 되돌아보면 단어 암기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취직을 위한 각종 시험에서도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험이 객관식 위주로 되어있고 객관식에서 정답 고르기에 익숙한 학습자들이, 세상이 이제는 말하기와 쓰기를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보니 적지 않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문수업을 진행해보면 단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억되지 못하고 하나하나 낱개로 나뉘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 글쓰기 교육, 작문교육에서 어휘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실제로 제대로 된 영어 문장을 적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어휘력이라 함은 바로 연어(collocation)에 대한 지식이다. 연어, 말뭉치에 기초한 어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영어학습은 쉬워진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습자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Stanovich(1986)는 읽기와 어휘력간의 관계를 'Matthew 효과'라고 부르

며, 이 효과는 읽기 발달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즉 어휘력이 풍부한 학생은 더 많이 읽어서 점차로 더 잘 읽게 되고, 어휘력이 약한 학생은 덜 읽게 되고 점차로 읽기 수행이 줄어든다는 것이다(Stanovich, 1986).

아는 만큼 읽히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적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니 이 언어에 대한 지식은 영어의 네 가지 영역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어휘력은 어휘·문법 능력, 듣기 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과 각각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영역을 모두 포함한 전 언어 능력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어휘를 안다는 것은 그 기본적인 뜻은 물론이고 다의적인 뜻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맥락적 쓰임 및 적절한 공기 관계에 대한 이해를 포괄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한다(이정민, 김영주, 2010). 어휘를 안다는 것은 그 어휘를 마주칠 확률, 함께 결합되는 어휘를 아는 능력, 다양한 상황과 기능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 통사적 특성에 대한 지식, 어휘의 기저형과 도출형에 대한 지식, 다른 어휘와 연합한 의미적 그물망에 대한 지식, 그리고 어휘의 의미적, 화용적 지식 등을 포함한다(Richards, 1976).

학생들이 적어낸 영어 문장을 보면 언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명사가 어떠한 형용사랑 자주 쓰이고 그 명사를 받쳐주는 동사에는 어떤 동사가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 의사소통에서 문법을 틀린 것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지만 문법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단어 간의 어울림이 맞질 않으면 더 큰 의사소통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Brown(2001) 역시 의사소통에서 문법적인 오류보다 어휘적인 오류가 이해를 방해하는 더 큰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3. 교착어와 굴절어의 개념

교착어란 다양한 파생 접사, 굴절 접사(형식 형태소)가 어근(실질 형태소)에 부착되어 의미를 전성(轉成)시키거나 문법적 관계가 표시되는 언어로서, 어근과 접사, 접사와 접사는 독립적이며, 내부 구조가 선명하여 기계적인 탈착, 교체가 가능한 언어를 말한다. 한국어가 여기에 속한다.

굴절어란 문법 범주에 따라 단어가 굴절하는 언어로서, 굴절어의 굴절은 교착어와 달리 어형 자체가 변화하며, 굴절된 변화형은 여러 가지 문법 범주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영어가 여기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 코퍼스 검색 시에 신경을 쓴 부분이 바로 교착어의 어미 부분이다. 레마처리는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레마처리(lemmatization)란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에서는 '가다'라는 동사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가다', '갔으니', '가서', '가보니', '갔으므로' 등등 변이형들을 모두 고려해서 빈도수를 세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굴절어 영어에서도 역시 go, went, gone 등의 변이형들을 모두 고려해서 빈도수를 세어야 한다.

4. 선행연구

지금까지 코퍼스를 활용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그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코퍼스를 활용해 학생들의 언어능력이 떨어짐을 확인하고 언어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이윤경, 2009; 이은주, 2009 등)

이다. 이윤경(2009)은 형용사와 명사 간 언어 능력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결과 문항 420개중 정답 수가 112개로 평균 26.67%로 상당히 낮으며, TOEIC점수와 언어 능력의 상관관계는 0.572로 0.01수준에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대학생들이 원어민 화자들의 실제 언어가 담긴 코퍼스 자료 속에 빈번히 등장하는 언어 관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두 번째 유형은 코퍼스를 이용한 교과서 분석 연구(김영미와 서진희, 2006; 고광윤과 박정준, 2007; 권인숙, 2004; 전문기와 임인재, 2010 등)이다. 전문기와 임인재(2010)는 제7차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해 개발된 고등학교 1학년 공통 영어 교과서 7종에 수록된 본문 읽기 자료의 언어학적 특성을 Coh-Metrix 전산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비교분석 하였다. 7종 영어 교과서 읽기 자료의 난이도 및 이해도를 가늠할 12가지 언어적 지표를 세웠지만 각 교과서들마다 편차가 크고 평균 문장 길이, 통사적 복잡성, 어휘 빈도, 어휘의 다양성, 텍스트의 응집성이 제각각임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수능시험 본문을 코퍼스를 이용해 분석한 연구(김낙복, 2008; 고광윤과 백주현, 2010 등)이다. 김낙복(2008)의 연구에서는 수능 외국어 영역에서의 언어적 쌍의 어휘적 뭉치말이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제 7차 교육과정과 앞으로 예상되는 수능영어 대체시험의 일환인 국가영어능력평가에서의 뭉치말 교수 학습 활동과 평가를 강조 하고 있다.

고광윤과 백주현(2010)은 연도별 수능 외국어 영역의 어휘 수 변화를 코퍼스를 통해 분석하였고 시험에 사용된 어휘의 수는 1500개 타입, 약 4000단어 내외로 일정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수능 외국어 영역에 기초학술어휘의 반영률이 극히 낮아 수능영어시험이 대학수학능력으로서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기에는 충분히 적절한 시험이 아닐 수 도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수능 외국어 시험이 본래 의도된 것처럼 예비 대학생들이 지닌 대

학에서의 수학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이라면 기초학술어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네 번째 유형은 코퍼스 사이트를 활용한 영어 쓰기에 관한 연구(이문복, 2009)이다. 이문복(2009)는 현직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코퍼스 Concord Writer의 활용이 교사들의 영어 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코퍼스를 활용한 교사들의 작문 채점 결과, 대체로 쓰기 능력 향상에 코퍼스 활용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cord Writer가 영어교사의 영어 쓰기 보조 도구로서의 활용을 넘어 교실현장에서 학생들에게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작문과정 중에 부딪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참고 도구로서의 Concord Writer의 활용을 권고하였다.

다섯 번째 유형은 구축된 코퍼스를 바탕으로 은유적 표현을 추출해 비교하는 연구(김용진, 2007; 김해연, 2008 등)이다. 김해연(2008)은 세종 계획의 한글 코퍼스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얼굴'과 얼굴관련 어휘로 '낮', '안면', '면목'의 빈도수를 조사하고 또한 각 어휘의 의미, 동반수식어와 서술어를 분석하였다. 이들 어휘들은 신체의 한 부분으로서 '머리의 앞부분'을 가리킨다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지만, 각각 다른 의미영역을 갖고 있으며, 또한 공기관계를 형성하는 서술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코퍼스 구축을 통한 영자신문에 대한 분석연구(고광윤과 이성운, 2008; 민덕기와 김소라와 김규화, 2010 등)이다. 고광윤과 이성운(2008)은 한국 영자신문에서의 사용비중이 미국의 영자신문에서보다 유난히 높은 핵심 기능어 키워드 6개를 중심으로 한국 영자신문 영어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 영자신문은 문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매우 자연스런 영어로 보일지 모르지만, 언어의 사용양상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주제나 내용의 차이를 넘어서는 매우 흥미롭고 다양한 차이가 나

타남을 발견하였다. 일종의 비모국어성(non-nativeness)이라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한국적 영어의 언어적 특징은 무엇보다 한국 영자신문의 텍스트를 작성한 한국어 화자의 언어사용적 특성이 그들의 영어의 사용에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퍼스를 이용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상기 연구들은 주로 영단어 말뭉치 분석, 교과서 내 영단어 분석, 수능시험 지문 내 영어 말뭉치 분석, 영어 글쓰기 사이트 이용효과, 국어 내 동의어간 결합양상분석, 한국 영자신문과 미국 영자신문의 영어 어휘 차이 분석 등으로 주로 영어 간 분석, 한국어 간 분석 즉, 동일 언어 간 비교분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특히 영어 텍스트 자체 내 분석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자신이 하고 싶은 한국어 표현을 영어표현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작문에 앞서 우선 한국어 어휘간의 결합양상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영어로의 작문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찰할 것이다. 작문 과정에서 두 언어 간 차이로 인해 격게될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고 코퍼스의 활용을 통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인 영어교사 및 교육자들이 코퍼스가 가지는 장점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영어 글쓰기 교육에 접목시킬지를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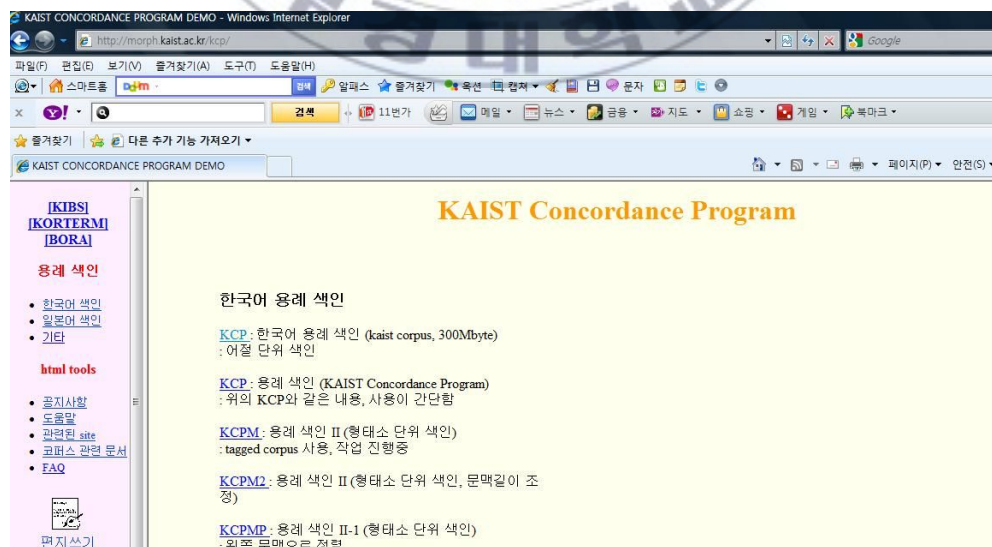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도구

1.1 카이스트 콘코던서(KAIST Concorda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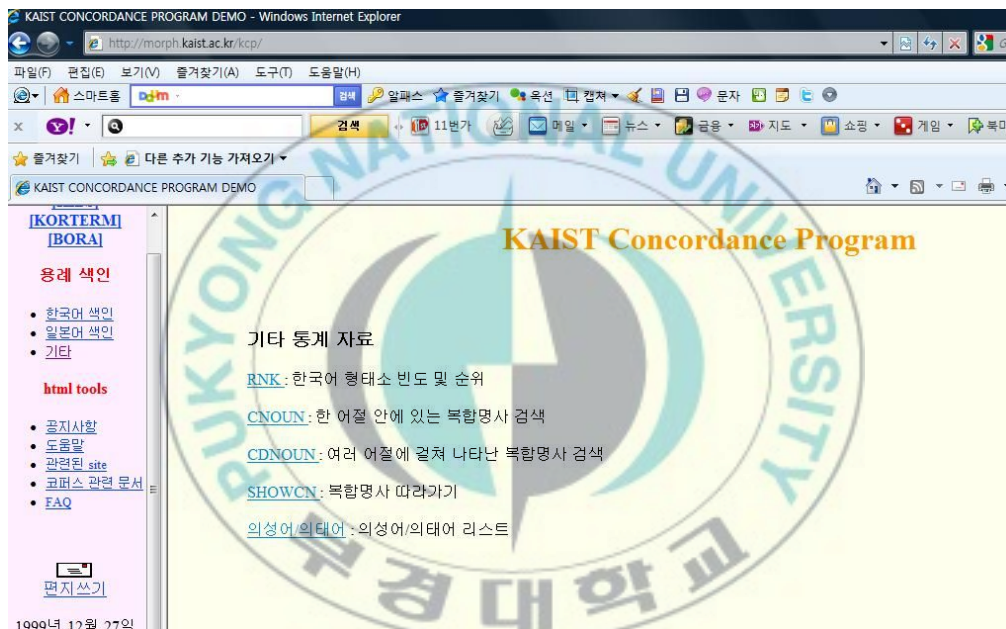
문화체육부와 과학기술처의 연구과제 국어정보처리기반구축과 STEP2000에서 구축된 KAIST 코퍼스인 KCP(KAIST Concordance Program)는 한국과학기술원과 CS Lab에서 제작한 사전을 제작하기 위해 만든 정보획득도구로, 단어의 용례를 보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어절단위로 색인을 구축하고 현재 KAIST 코퍼스 7000만 어절이 등록되어 있다. (<그림 1> 참조)

<그림 1> KAIST Concordancer Program 홈페이지



부가기능으로는 한국어 형태소 빈도 및 순위(RNK), 한 어절 안에 있는 복합명사 검색(CNOUN), 여러 어절에 걸쳐 나타난 복합명사 검색(CDNOUN), 복합명사 따라가기(SHOWCN)등 다양한 부가 기능을 <그림 2>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그림 2> KAIST Concordancer Pprogram 기타 기능



수록 어휘는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및 각종 뉴스(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국제, 정보통신/과학, 스포츠, 교육, 방송/연예, 사설)등의 한국어 색인의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고 현재 코퍼스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확장 중이다.

1.2 영어 코퍼스

Google 검색창에 '영어 Concordancer'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가장 상위에 검색된 곳 '영어 Concordancer' 라는 검색결과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www.lextutor.ca로 연결된다. 이곳은 Cobb가 주도하여 만든 퀘벡대학 Corpus 이다. 이곳에는 Brown Corpus를 비롯한 여러 코퍼스를 통합한 최대 3백만 단어의 코퍼스 등 무려 18개의 무료 코퍼스를 제공하고 있다. 퀘벡대학교(University of Quebec at Montreal)에서 개발한 온라인 색인 프로그램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이용 가능한 여러 코퍼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64년 브라운 대학교(Brown University)에서 제작한 최초의 전자 코퍼스인 브라운 코퍼스(Brown Corpus)와 BNC 코퍼스(British National Corpus)이다. 브라운 코퍼스는 100만 단어의 미국 문어 영어로 구성되어 있고, BNC 코퍼스는 구어 100만 단어와 문어 100단어의 200만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둘을 합쳐서 300만 단어로 연동하는 메뉴가 4번째 줄에 있는 All of above (3+m) 메뉴이다. <그림 3>와 같이 실제 예를 보여준다.

<그림 3> Corpus Concordance English 홈페이지

검색어를 넣고 구동시켜 보면 최대 200개까지 예문이 검색된다. 예문의 숫자를 최대 200개로 제한하고 있다. 검색어를 200개로 제한한 이유는 코퍼스를 활용한 귀납적인 발견식 학습에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오히려 학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Thurstun; Candlin, 1998). 실제로 특정 표현에 대한 200개의 예문도 영어 지식이 별로 없는 일반 학습자들이 자기 스스로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양이다.

2. 자료 수집 및 절차

2.1 한글색인의 품사별 데이터 수집 및 절차

카이스트가 제공하는 색인 사이트 <http://morph.kaist.ac.kr/kcp/>에서 한국어 색인 메뉴에 들어가서 어절 단위 색인인 KCP 한국어 용례색인을 이용해 검색어 '바람이'를 입력하여 <그림 4>와 같이 3530개의 검색결과를 얻었다.

<그림 4> KAIST Concordancer '바람이' 검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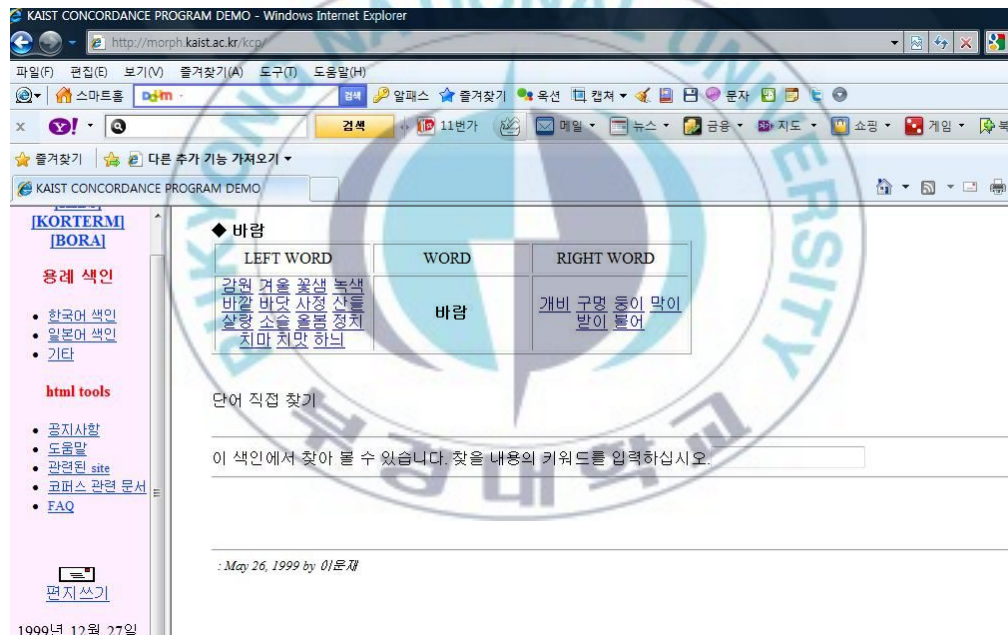
Line Number	Text
3702: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바람이
3704:	차갑고 여름에는 훨씬 시원하고 깨끗한 바람이 불어온다. 낙동 강변의 일부분
3706:	바람도 쇄곤 했다. 언제인가 11월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부터 '날씨인원도
3704:	건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육'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복도 벽을
3707:	코사를 볼 때에는 \나도 모르게 어깨에서 바람이 나는 것이었다.\ 나는 어떻게
3707:	숨겨나 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한결같이 그 \어머나
3708:	우리 아이들은 간절히 원하는 최소한의 바람이 있다. (아직껏 식탁 대화가 있는
3708:	학교의 품을 우리는 기대한다. 우리들의 바람이 어른들이 보기엔 창당하게
3708:	끝에 섰. 아이 하나를 붙잡고 싶은 절절한 바람이 하늘 바람처럼 모두의 가슴을
3708:	연기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움직인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다. \창문을 열어
3710: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치지만,
3710: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치지만,
3710:	있었는데, 종횡에 잠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3710:	\GA0501마014:030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무서움에
3710: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GA0501마014:033 배 안에
3710:	잠잠해져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3710:	노를 젓노라고 잠시 애쓰는 것을 보았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3710: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잠시
3710: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3710:	오시지 않았다.\GA0501요06:18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3710:	\GA0501행02:02 그 때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3710: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이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안타깝게도 이곳에는 다른 코퍼스 구축 프로그램과 같이 언어관계를 이루는 단어를 세어주는 기능이 없어서 직접 아래로 드래그해가며 표현을 수작업으로 엑셀에 입력해가며 추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동사는 '분다'는 제

외 하였고 '바람이 그치고' 등은 '그치다' 동사로 현재형 동사원형으로 계수하였다. 부사는 좌측과 우측에 나타나는 것을 모두 세었다.

명사는 붙여쓰기와 띄어쓰기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서 이곳에서 제공하는 <그림 5>의 기타 메뉴 기능 중 '복합명사 따라가기' 기능을 참조 하였다.

<그림 5> KAIST Concordancer 기타메뉴 복합명사 따라가기



2.2 영어 코퍼스의 품사별 데이터 수집 및 절차

코퍼스 사이트 <http://www.lex tutor.ca/concordancers>의 검색창에 우리말 '바람'에 해당하는 'wind'를 입력하고 200개의 검색결과가 나왔다.

<그림 6>처럼 이 사이트에서는 학습자들의 발견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문을 최대 200개로 제한하고 있다. 검색결과 200개는 모아진 한글 코퍼스에 비하면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곳에서 제공하는 18개 코퍼스 전부에 'wind'를 입력하고 검색되어진 자료를 모두 합쳐서 총 1621개의 예문을 수집하였다.

<그림6> Corpus Concordance English 'wind' 검색결과

Home> Concordancers> English input [<Back (keep settings)] Colloc summary
 Concordance for equals WIND sort 1 wds left of key Dictionary Eng_Fren Go
 extract ☒ [All | none | any 10 | 20] Click keyword for more context Corpus All of above (3+ m) New Sort: 1 word(s)

001. FAMILY In this issue... The potentials of a WIND-swept site in the Cotswolds proved immense, p
 002. should stay dry all day, but there'll be quite a WIND, so wrap up warm. If rain joins the wind late
 003. . They said well that's a load of rubbish! It's a WIND up innit? They said the only thing we've been
 004. age that had clung to the church for 800 years. A WIND was gathering at the coast, preparing to swee
 005. as much as 600 miles from crest to crest. While a WIND wave never travels at more than 60 miles per
 006. e settled by" theory. In recent years, however, a WIND of change seems to be blowing through early E
 007. him burp. Oh no! I don't. Cos he feels he's got a WIND so he Oh I can't force myself. Nor can I. Aar
 008. nd low over the horse's neck as if to hide from a WIND that had begun to blow far away and was twist
 009. ohn marked the field with a red table cloth. As a WIND direction indicator, they tied a cotton rag t
 010. rt Flute Concerto Number two, songs by Heather, a WIND quintet. The chairman will ask Jimmy if he wo
 011. woman for Sizewell B said: "We believe it's not a WIND-up, but if it is his friends will get a good
 012. wristwatch inside a cod's stomach appears to be a WIND-up. National and local papers, television and
 013. s, which were moving lazily in the soft afternoon WIND. "It looks beautiful, doesn't it?" Conway loo
 014. rns, I can't remember offhand? Erm tha that's all WIND parts. So we need some clarinet parts? We nee
 015. 2cm (Fig 3). Squeeze the paper to the "stem" and WIND some sticky tape round it to secure it. Cover
 016. he is running for Congress, are well staged, and WIND up in a wild Jewish folk-dance that is really
 017. page full Yeah starts to wind fan fold paper and WIND it and wind it and wind it Bet they're all pr
 018. ation at Northfield, Vermont, for temperature and WIND-velocity readings. Shaw could also give the f
 019. d all you heard was the rattling and creaking and WIND rushing past and the muffled pounding of the
 020. e climate conditions, the exposure to the sun and WIND, the water interests, etcetera, which vary gr
 021. eah starts to wind fan fold paper and wind it and WIND it and wind it Bet they're all printed it's c

이 1621개의 예문을 한글 분석과 마찬가지로 드래그 해가며 엑셀에 어휘를 입력하였다. 형용사는 wind 앞쪽에 나타나는 어휘들을 모았고, 부사는 wind 앞쪽과 뒤쪽에서 나타나는 어휘들을 모두 수집하였다. 복합명사는 영어와 우리말이 표현법에 있어서 차이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말 '산들바람'은 산들+바람의 결합이지만 영어에서는 breeze로 wind와 아예 철자가 달라지는 양상을 띠는 것들이 있어서 한영사전과 병행해서 작업하였다. 동사는 레마처리를 하여 그 결과들을 동사원형으로 취합하였다.

IV. 연구 결과 분석

1. 형용사-명사 관계 데이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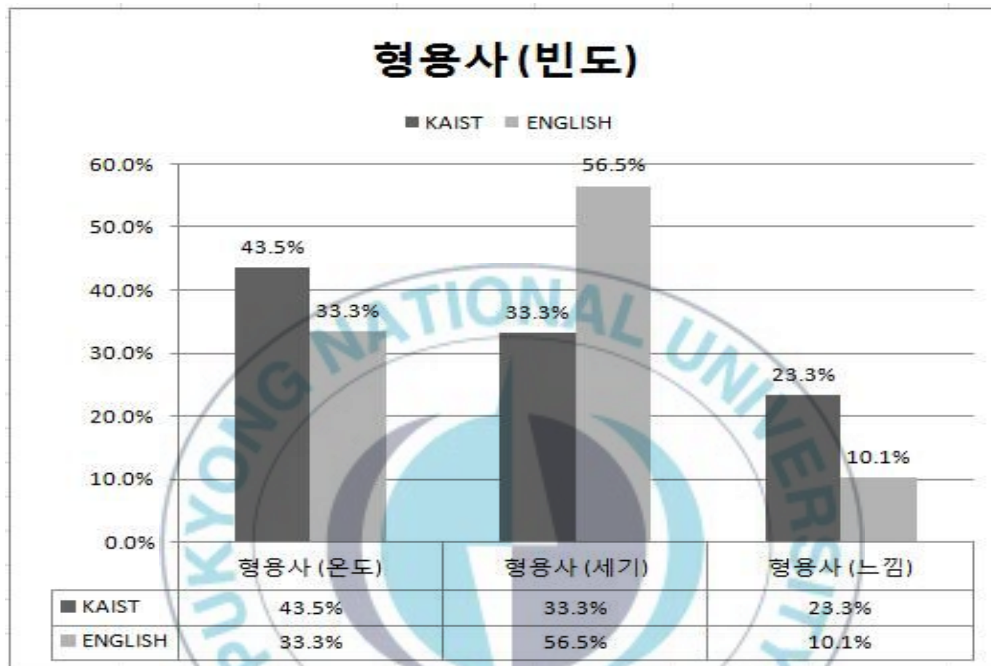
두 가지 코퍼스 KAIST 한글색인, 영어 코퍼스에서 나타난 형용사의 빈도가 한글색인 481회, 영어 코퍼스 414회로 모두 450을 전후로 분포하며 빈도수의 크기가 비슷함을 볼 수 있다. 중복된 단어를 추린 타입수는 한글색인 46개, 영어 코퍼스 64개로 나타났다. 발견된 빈도수 및 타입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형용사 빈도 및 타입별 분석

		온도	세기	느낌	합계
빈도	KAIST	209 (43.5%)	160 (33.3%)	112 (23.3%)	481 (100%)
	English	138 (33.3%)	234 (56.5%)	42 (10.1%)	414 (100%)
타입	KAIST	15 (32.6%)	16 (34.8%)	15 (32.6%)	46 (100%)
	English	15 (23.4%)	34 (53.1%)	15 (23.4%)	64 (100%)

형용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형용사 타입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과 그 형용사들의 유형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형용사를 온도, 세기, 느낌의 세 종류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시원한', '따뜻한' 등의 온도 형용사와 '강한', '매서운' 등의 세기 형용사 그리고 '상쾌한', '신선한' 등의 느낌 형용사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표 1]의 형용사를 빈도별, 타입별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7>과 <그림 8>과 같다.

<그림 7> 형용사 빈도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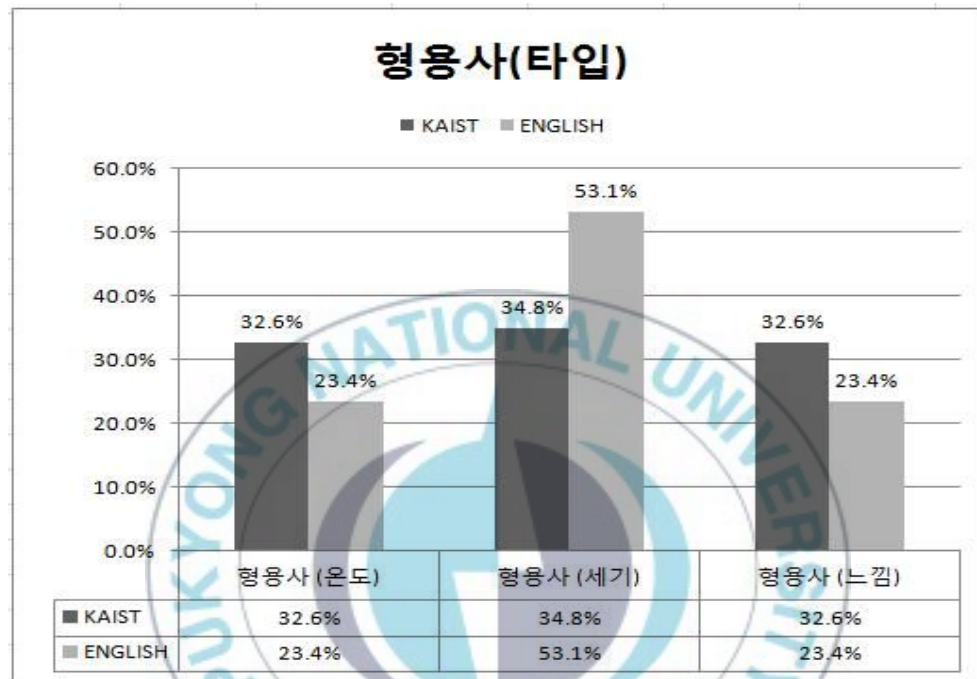


우선 발견되어지는 빈도 면에서 형용사를 살펴보자.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는 온도관련 형용사가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온도-세기-느낌 순으로 발견 빈도가 나타나고 있다.

영어는 빈도에서 세기 형용사가 가장 많고 세기-온도-느낌의 순이다. 영작문 교육에서 수준이 낮은 작문 초반에는 다빈도어를 먼저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학습이 진행될수록 즉, 고급 영작문으로 갈수록 빈도 보다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응표현 자체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림 [표 1]에 나타난 발견된 형용사 타입별 전체 비율을 <그림 8>을 통해

살펴보자.

<그림 8> 형용사 타입별 분석



발견된 형용사 타입수를 보면 <그림 7>에서 살펴본 빈도 결과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한국어에서 '바람'과 연상된 형용사를 사용할 때 온도관련 형용사를 가장 흔히 사용하고 있었지만 존재하는 타입수에서는 오히려 세기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났다. 한국어에서 존재하는 형용사 타입수는 전체적으로 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영어는 빈도에서는 세기형용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존재하는 타입수에서도 세기형용사가 가장 많았다. 즉 영단어 'wind'와의 결합 시 세기형용사를 가장 흔히 사용하고 타입수도 가장 많이 존재했다.

<그림 8>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작문 시 한국인 학습자들이 격게될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온도와 느낌 형용사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 15개로 발견 형용사 숫자가 같기 때문에 작문 및 번역시 대응 어휘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세기 형용사는 한국어 16개, 영어 34개로 영어가 훨씬 개수가 많다. 그것은 곧 한국인이 써낸 영어문장에서 세기 관련 형용사는 매우 단순한 양상을 띠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한영 작문 상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영한 번역 상엔 영어 어휘가 훨씬 많아 우리말 어떤 단어로 옮길지 상당한 고민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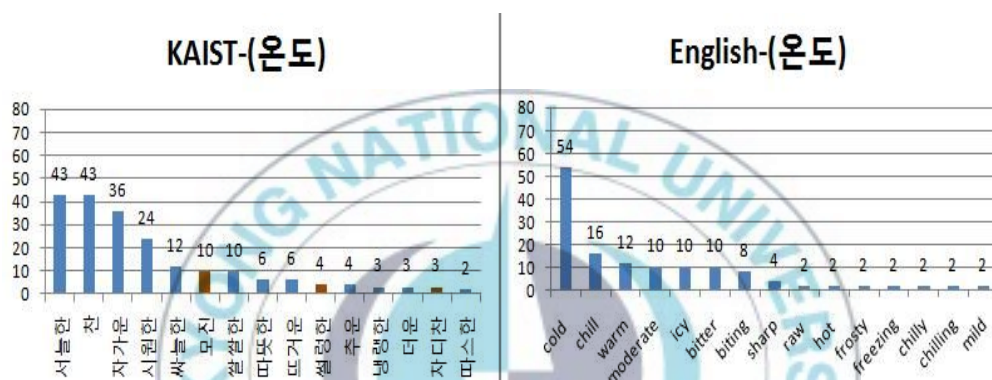
코퍼스 검색을 통해서 추출된 한국어와 영어의 바람관련 형용사를 정리한 [표 2]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표 2] 한글색인 및 영어 코퍼스에서 추출된 형용사 표본

	형용사 종류				
한국어 (46개)	서늘한	찬	차가운	시원한	싸늘한
	모진	쌀쌀한	따뜻한	뜨거운	썰렁한
	추운	냉랭한	더운	차디찬	따스한
	거센	세찬	매서운	강한	매운
	센	큰	사나운	가벼운	거대한
	무거운	거친	날카로운	심한	한 가닥의
	강력한	신선한	선선한	스산한	건조한
	습기찬	음산한	맑은	소슬한	미친
	스치는	상쾌한	축축한	부드러운	쫄쫄한
	훈훈한				
English (64개)	cold	chill	warm	moderate	icy
	bitter	biting	sharp	raw	hot
	frosty	freezing	chilly	chilling	mild
	strong	light	good	terrible	soft
	high	wild	violent	stiff	rising
	prevailing	little	fair	thin	quiet
	howling	great	favoring	favorable	blustery
	whirling	vicious	terrific	swirling	stormy
	slight	screaming	hissing	gusty	gusting
	firm	extraordinary	big	a lot of	incessant
	sudden	gentle	brisk	wet	rustling
	relentless	angry	refreshing	pleasant	fresh
	fine	damp	cruel	capricious	

온도 형용사를 살펴보자. 발견된 타입의 개수는 한글색인 15개, 영어 15개로 같았다. 우선 첫 번째로 온도 형용사의 사용빈도를 나타낸 <그림 9>를 보자.

<그림 9> 온도 형용사 코퍼스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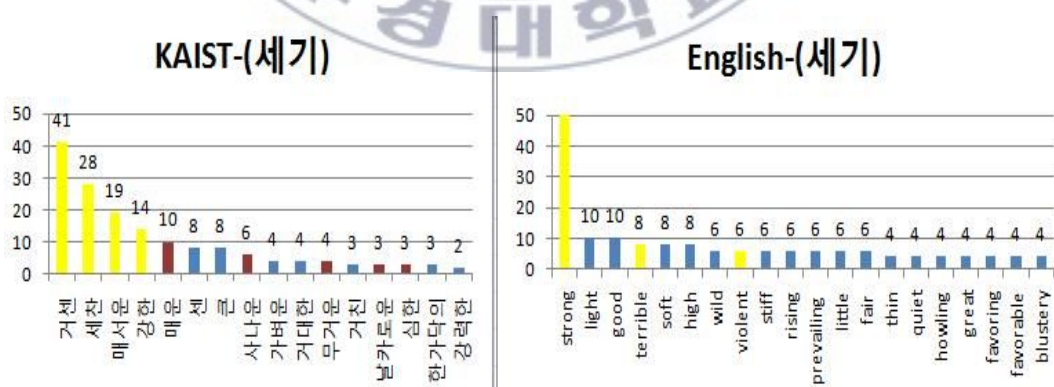
한영 대응관계를 보면 '서늘한, 싸늘한=>chill(y)', '찬, 차가운=>cold', '모진=>sharp, bitter', '냉랭한=>frosty', '차디찬=>freezing, icy'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영 작문 및 영한 번역 상 무게감이 비슷한 형용사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명사와 결합하는 형용사가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작문 교육 시 '찬=>cold', '쌀쌀한=>chilly'만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빈도수는 낮지만 엄연히 문헌상 존재하는 icy, bitter, biting, sharp, frosty등의 어휘들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세기 형용사를 살펴보자. 영어코퍼스 분석결과에서는 특이할

만 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영어에서는 빈도수는 세기>온도>느낌 순으로 나타났고 타입 수는 세기>온도=느낌 순으로 한국어와는 다르게 거의 변화가 없었다. 영어는 <그림 10>에서 보면 'wind' 앞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는 우리말과 다르게 'strong', 'light', 'terrible'과 같은 세기 형용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어는 온도, 세기, 느낌 형용사의 타입이 거의 비슷하지만 영어는 세기에 집중분포 했다. 발견된 세기관련 형용사는 영어에서 strong, light, good, terrible, soft, high, wild, violent, stiff, rising, prevailing, little, fair, thin, quiet, howling, great, favoring, favorable, blustery, whirling, vicious, terrific, swirling, stormy, slight, screaming, hissing, gusty, gusting, extraordinary, big, a lot of 등 34가지로 매우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세기 형용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타입의 개수는 한글색인에서 16개이고 영어는 34개로 훨씬 많았다. 세기 형용사 다빈도 결과는 아래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세기 형용사 코퍼스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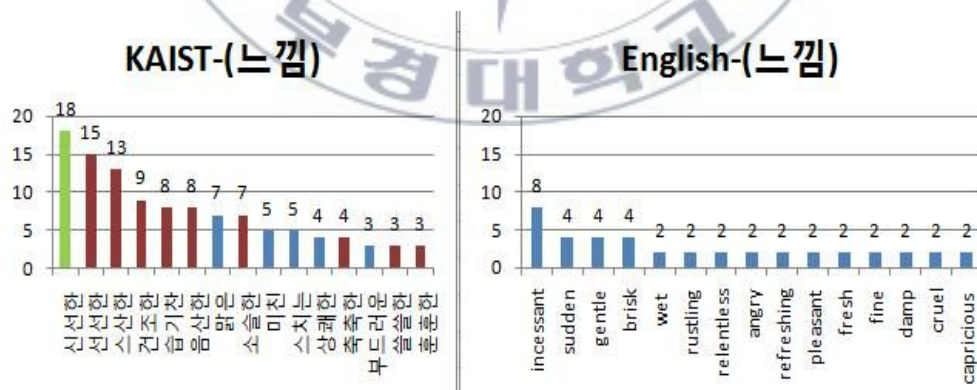


세기에서 나타난 그래프 결과를 보면 한글색인에 사용된 '강한', '세찬', '

거센', '매서운'의 어휘들이 1~4위를 차지했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영어에는 세기 형용사가 한국어보다 훨씬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영 대응 시 '강한', '세찬', '거센', '매서운' 등은 'strong, terrible, wild, violent, high, prevailing, howling, great, blustery, vicious, terrific, stormy, gusty'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작문현실은 strong 하나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느낌 형용사를 살펴보자. <그림 11>를 보면 타입의 개수는 한글색인 15개, 영어 15개로 같았다. 타입의 종류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사용되어진 어휘의 양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느낌 부분이었다. 느낌 형용사가 다른 온도, 세기 형용사에 비해서 고급어휘들이 밀집해 있었다. 일반인들이 적어내기에는 굉장히 문학적이며 어려운 표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이 바로 느낌 형용사 부분이었다.

<그림 11> 느낌 형용사 코퍼스별 분석



하지만 우리말에 나타난 다양한 바람관련 정서적 느낌 형용사는 그것을 영어로 옮길 때 우리말에 대응하는 영어 어휘가 별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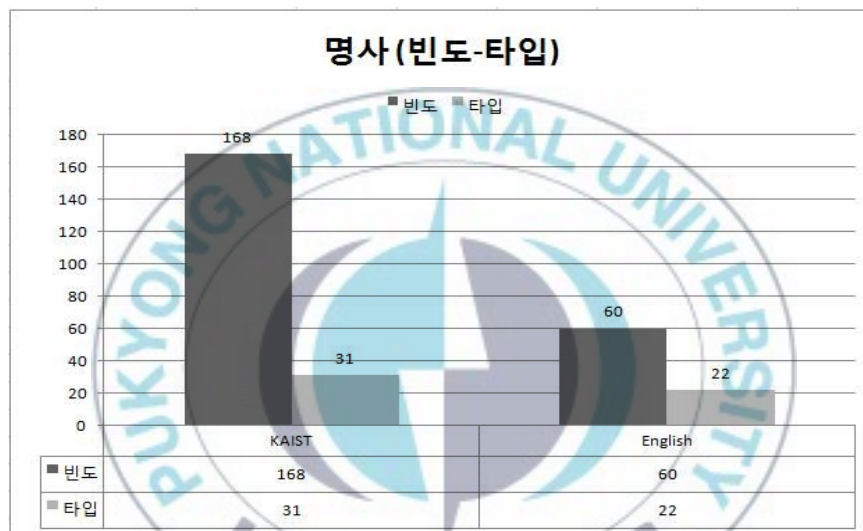
있다. 바람을 보고 느끼는 한국인의 정서적 느낌과 원어민 영어 화자가 바람을 보고 느끼는 정서적 느낌이 다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한국어처럼 바람과 관련된 정서적인 표현이 발달하지 않아서 발견되어진 형용사의 빈도수가 대부분 2이하로 나타났다. 즉 흔히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한영 대응관계를 살펴보면 '습기찬=>wet', '상쾌한=>refreshing', '촉촉한=>damp', '신선한=>fresh', '미친=>angry'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나머지 한국적 정서를 반영하는 '소슬한, 스산한, 음산한, 쓸쓸한,昏昏한' 등은 대응어를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한국어의 정확한 뜻도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대응어를 찾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대일 대역식 작문뿐만 아니라 한국어 화자와 영어 화자 간 존재하는 정서의 교육도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영어 코퍼스에서 발견된 느낌 형용사의 경우에도 많은 어려운 어휘들이 존재했다. 특히 'brisk', 'rustling', 'damp', 'capricious'등의 어휘는 쉽지 않은 형용사들이다.

2. 명사-명사 관계 데이터 분석

한영 코퍼스별 명사 빈도수 및 타입의 수는 아래와 같다.

<그림 12> 명사 빈도-타입 분석



형용사와 어휘추출 범위는 같았지만 네 부분에서 고르게 빈도결과가 나온 형용사와는 다르게 명사에서는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글 코퍼스와 영어 코퍼스에서 바람과 대응하는 명사는 빈도 면에서는 한영 168:60으로 차이가 크게 났지만 발견된 타입수를 보면 한영 31:22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음의 [표 3]을 보자.

[표 3] 한글색인 및 영어 코퍼스에서 추출된 명사 표본

명사 (정렬순서 : 고빈도수를 왼쪽상단으로 정렬)					
한국어 (31개)	회오리	가을	한줄기	새벽	겨울
	저녁	바다	바깥	선풍기	모래
	들판	여름	먼지	에어컨	산들
	비	꽃샘	하늬	산	냉방기
	아침	산등성이	망하	봄	밥
	동녘	대륙	눈싸라기	늦새	낮
	골짜기				
English (22개)	wintery	wintertime	winter	westerly	west
	summer	southwest	south	off-shore	northwest
	northerly	north-east	north	night	from the sea
	evening	easterly	east	dawn	April
	afternoon	night			

한글색인에서는 31개의 명사가 발견되었고 영어 코퍼스에서는 22개의 명사가 발견되었다. 한글색인에서는 '회오리바람'이 가장 많은 결합 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이 '가을', '한줄기', '새벽', '겨울'등의 순서였다. 특정 몇 가지 명사에 집중 분포하고 나머지 명사들은 발견 빈도가 매우 낮았다.

한영 대응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어의 '바람'을 영어의 'wind'로 나타낼 때 영어에서는 wind랑 같이 다니는 복합명사들이 몇 가지로 한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의 [표 4]를 보자.

[표 4] 명사 빈도 및 타입별 분석

		계절	방향	시간	세기	기타	합계
타입수	KAIST	4	2	5	4	16	31 개
	English	5	12	5	0	0	22 개

발견된 영어 타입 수 22개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winter',

'summer'등의 계절관련 5개, 'south', 'northwest'등의 방향관련 12개, 'night', 'evening'등의 시간관련 5개 어휘들 이었다. 이들 세 종류가 22개 전부를 차지했다. 즉, 영어에서는 'wind'랑 '계절', '방향', '시간' 명사들만이 결합한다는 말이다. 한국어에서는 전체 발견 타입 수 31개 중 영어랑 같은 '계절', '방향', '시간'을 모두 11개로 전체 발견 31개의 35%에 불과했다. 그러면 나머지 65%의 한국어 명사 어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가라는 질문이 남는다.

한영대역 작문에서 한국어의 복합명사들이 영어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첫 번째로, 한국어 복합명사가 영어에서는 분사+전치사구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ex 1) 한국어 :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다.

English : The wind blowing from an air conditioner is cool.

위의 예문에서처럼 우리말의 복합명사가 영어에서는 분사+전치사구 형태로 표현된다. 즉 영어에서는 우리말의 '에어컨 바람'처럼 '명사+명사'결합을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로, 한국어 복합명사가 영어에서는 다른 명사로 바뀌어서 표현되는 경우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ex 2) 한국어 : 사막의 모래바람에 우리는 길을 잃었다.

English : We lost our way in a sandstorm in the desert.

위의 예문에서처럼 우리말의 '모래바람' 복합명사가 영어에서 'sand wind'라고 표현하지 않고 'sandstorm'으로 표현되고 있다.

세 번째로, 한국어 복합명사가 영어에서는 부사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ex 3) 한국어 : 바깥바람이 차다.

English : Outside the wind is cold

위의 예문에서처럼 우리말의 '바깥바람' 복합명사가 영어에서 'outside wind'라고 표현하지 않고 'Outside the wind'로 부사 outside를 명사 the wind 앞에 둠으로서 우리말의 '바깥바람'을 표현하고 있다.

위에서 소개한 예문 이외에도 영어에는 'wind' 대신 다른 어휘를 사용해 바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 수 있다. 즉, 우리말에 '바람'을 한자어 '풍'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wind' 대신 다른 어휘들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산들바람'은 'breeze', '회오리바람'은 'whirlwind', 'cyclone', 'twister', 'tornado'로 나타나고 있고 한국어에서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을 지닌 '황소바람'은 영어에서 'draft'로 표현된다. 이와 같이 명사-명사 복합명사 관계에서 영어는 'wind'라는 단어대신 제 3의 다른 명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코퍼스 자료를 이용한 명사-명사 한영대조 분석에서는 대조하고자 하는 한국어 명사가 영어의 다른 명사로 바뀌어 표현될 때는 코퍼스 분석 결과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영작문 교육 시 학생들에게 이런 점들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영사전 같은 다른 도구

를 이용해서 해당 대응어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한국어 바람관련 복합명사를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한국어 어휘력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인 화자들조차도 '높새바람', '하늬바람', '솔개바람' 등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명사-명사 관계에서는 영작문에 앞서 한국어 복합명사 어휘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높새바람'은 동북풍의 다른 우리말 표현임을 먼저 가르치고 영어로 'north-east wind', '하늬바람'은 서북풍을 의미하며 영어로 'north-west wind'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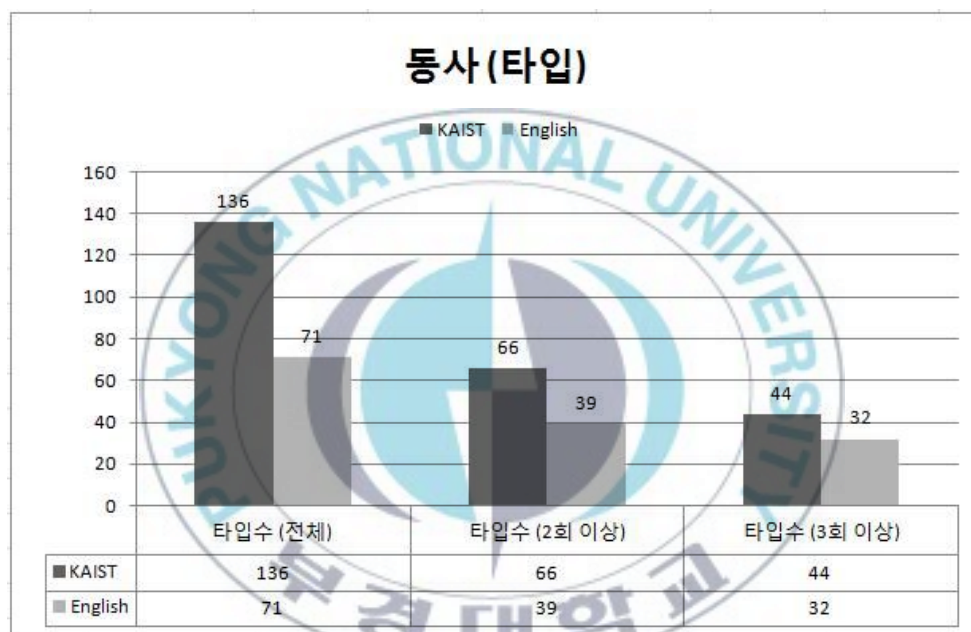
원어민 화자라 하더라도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른 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3. 명사-동사 관계 데이터 분석

두 가지 코퍼스별 동사 빈도수 및 타입의 수는 아래와 같다.

<그림 13> 동사 코퍼스별 타입수 분석



동사는 두 가지 코퍼스별 추출 빈도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빈도수를 기준으로 한 영 코퍼스별 차이가 거의 두 배 차이로 크게 나타났지만 개인의 창조적 동사 어휘 사용이 있음을 감안해 빈도수가 한 번인 것과 두 번인 것을 제외한 타입 수로 다시 나타내면 두 코퍼스 간 차이는 <그림 13>에서처럼 현격하게 줄어들어 빈도가 3회 이상인 동사들의 타입수는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한국어에서 한두 번만 사용

된 동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바람' 명사와 결합하는 동사가 개인의 자유에 맡겨지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도 3회 이상 사용된 동사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한글색인 및 영어 코퍼스에서 추출된 동사 표본
(빈도수 3회 이상만 정리)

	동사 (정렬순서 : 고빈도수를 왼쪽상단으로 정렬)				
한국어 (44개)	지나가다	일다	몰아치다	차다	스치다
	휘몰아치다	들어오다	그치다	자다	없다
	달려오다	일어나다	통하다	일렁이다	있다
	거세다	스며들다	매섭다	날아오다	나다
	갓아들다	왕왕거리다	세차다	멧다	거세지다
	펼럭이다	시원하다	살랑거리다	밀려들다	돌다
	지나다	운다	썰썰하다	심하다	서늘하다
	새어들다	불어닥치다	밀려오다	멈추다	맵다
	드세다	거칠어지다	강하다		
English (32개)	rise	come	feel	scream	become
	pick	die	whip	gust	shake
	begin	drive	howl	make	shift
	veer	drop	go	hit	There is
	breath	change	fall	increase	keep
	reach	rush	sign	stop	subside
	tear	whistle			

동사에서 나타난 한영 대응관계의 특징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동사에서는 하나의 한국어 표현이 여러 개의 영어 표현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했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ex 1) 한국어 : 바람이 일고 있다. (동사원형 : 일다)

English : A wind is spring up.

A wind is picking up.

A wind is rising up.

ex 2) 한국어 : 바람이 잔다. (=잔잔해지다)

English : A wind is dying (down).

A wind is dropping.

A wind is subsiding.

A wind is falling.

A wind is tapering off.

A wind is settling into quiet.

이와 같은 결과는 한영 작문 시 소수의 한국어 동사를 다수의 영어 동사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학생들의 작문이 소수 몇 개의 동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동사를 가르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한국어의 '~다'로 끝나는 동사형이 영어에서는 'be+형용사' 또는 'be+형용사+명사'형태의 동사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차다', '시원하다', '세다', '따뜻하다', '차갑다' 등의 우리말 동사들은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be+형용사' 또는 'be+형용사+명사' 표현되어지는 동사들이다. 이 결과는 영어의 동사 추출과정에서 발견되어지는 영어 동사의 개수가 왜 적은지를 설명해준다. 추출과정에서 'be+형용사' 또는 'be+형용사+명사'로 구성된 표현들은 동사 계수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

ex 3) 한국어 : 바람이 차다

English : There is a cold wind.

위 예문에서 'cold'는 계수 과정에서 'wind'앞의 형용사로 세었지만, 한국어로 해석을 해보면 '바람이 차다'라고 동사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영작문에서 우리말의 동사가 영어에서 상당수 'be+형용사+명사'로 표현되어짐을 가르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한국 학생들이 'be+형용사+명사'의 결합형 동사의 사용보다는 하나의 동사를 이용해 표현하려는 경향이 높다.



4. 동사-부사 관계 데이터 분석

본 연구의 중심명사인 '바람'과 직접적인 언어관계를 이루는 형용사, 명사와는 다르게 부사는 사실 명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품사이다. 그러므로 부사를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형용사나 명사와는 달리 '바람'과 가장 흔히 쓰이는 동사인 '분다'라는 동사를 고정시켜놓고 '분다' 동사와 결합하는 부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두 가지 한영 코퍼스별 동사 '분다'와 결합하는 부사의 발견 빈도수는 한글색인 269회, 영어 코퍼스 14회였으며 타입수는 한글색인 86개, 영어 코퍼스 7개로 나타났다. 보다 세밀한 분석을 위해 부사를 크게 온도, 세기, 느낌, 시간의 네 종류로 나누었다. 예를 들어 '싸늘하게', '스산하게' 등은 온도 부사, '싱싱', '심하게' 등은 세기 부사, '신선하게', '부드럽게' 등은 느낌 부사, '이따금', '규칙적으로' 등은 시간 부사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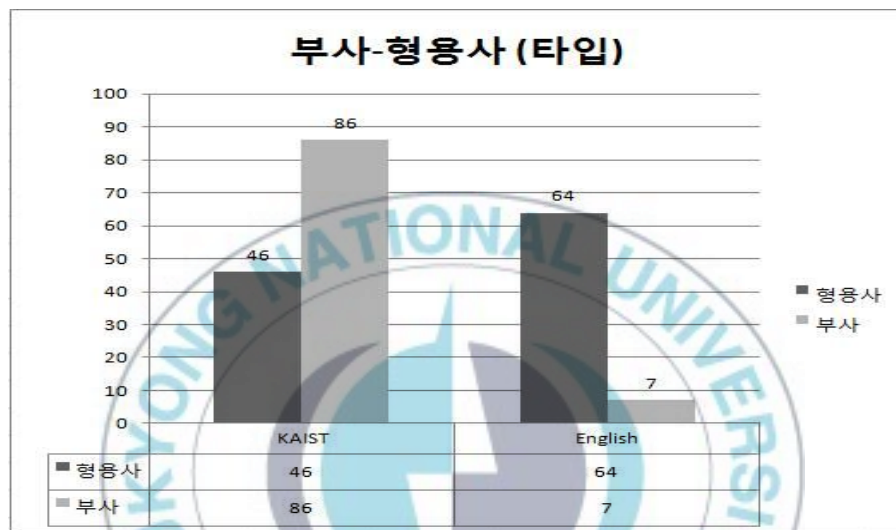
[표 6] 부사 빈도 및 타입별 분석

		온도	세기	느낌	시간	합계
빈도	KAIST	23(8.6%)	176(65.4%)	28(10.4%)	42(15.6%)	269(100)
	English	0(0.0%)	5(35.7%)	0(0.0%)	9(64.3%)	14(100%)
타입	KAIST	12(14.0%)	44(51.2%)	11(12.8%)	19(22.1%)	86(100%)
	English	0(0.0%)	4(57.1%)	0(0.0%)	3(42.9%)	7(100%)

앞에서 살펴본 형용사와 명사는 <그림 8>에서 보듯이 추출된 어휘 간 유사성이 매우 높다. 유사성이 높다는 것은 형용사와 명사 두 어휘 간 결합응집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부사는 문장에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어휘 간 결합력이 약하다. 이 결과를 보다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부사-형용사 타입 분석



명사 '바람'과 결합하는 형용사의 타입수는 한글색인 46개, 영어 코퍼스 64개로 영어 코퍼스에서 발견된 타입수가 한글색인보다 더 많다. 하지만 '분다'라는 동사를 고정해 놓고 찾은 부사의 발견 타입수는 한글색인 86개, 영어 코퍼스 7개로 그 결과가 정반대이며 차이 또한 현격하게 나타났다.

한글색인에서 추출한 86개의 부사와 영어 코퍼스에서 추출한 7개의 부사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한글색인 및 영어 코퍼스에서 추출된 부사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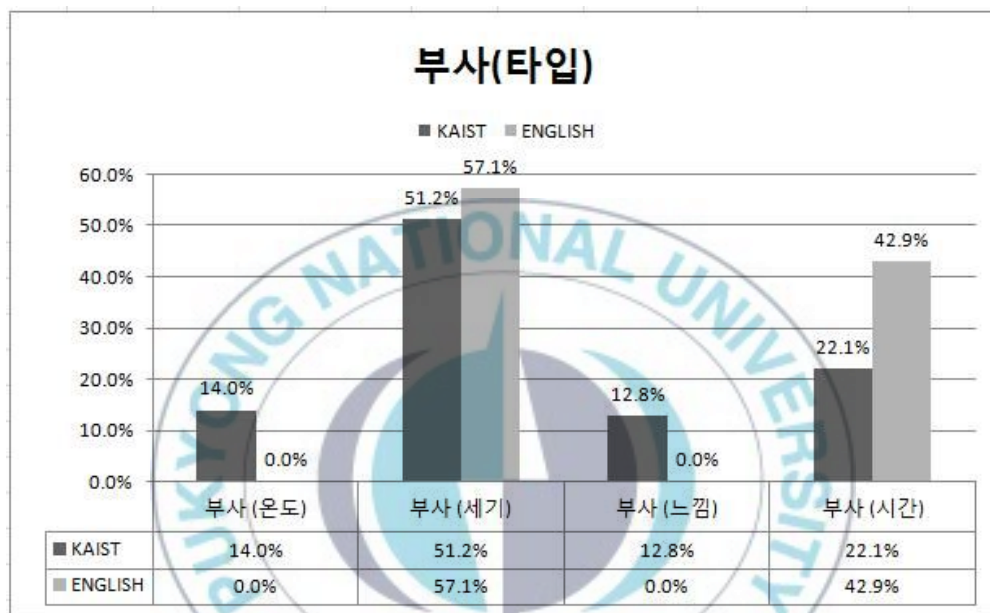
		부사 (정렬순서 : 고빈도수를 왼쪽상단으로 정렬)				
한국어 (86개)	온도 (12개)	차갑게	매섭게	혹독하게	서늘하게	행하니
		차디차게	으스스	쌀쌀하게	싸하게	싸늘하게
		스산하게	매몰차게			
	세기 (44개)	세차게	거세게	몹시	강하게	세게
		제법	심하게	거칠게	획	쌩쌩
		잔잔하게	승승	산들산들	사납게	많이
		너무	넉다	횡	획하니	휘잉
		휘이잉	획	혹	획하니	획
		확하고	확	조금	점점	윙윙
		우수수	엄청	약간	쌩쌩	싱싱
		췌	술술	서서히	사정없이	미치도록
		무섭게	맹렬하게	드세게	다소	
	느낌 (11개)	사랑사랑	시원하게	솔솔	휘휘	휘익
		췌아	신선하게	부드럽게	어지럽게	소슬하니
		덜없이				
	시간 (19개)	갑자기	이따금	한차례	자주	월새없이
		규칙적으로	간간히	가끔	희끔	항상
		자꾸	이따금씩	언듯언듯	시나브로	별안간
		끊임없이	계속	간혹	가끔씩	
English (7개)	세기 (4개)	fiercely	hard(er)	softly	strongly	
	시간 (3개)	suddenly	finally	steadily		

한글색인에서 발견된 부사는 네 가지 종류 '온도', '세기', '느낌', '시간' 중에서 '세기'관련 부사의 타입수가 [표 6]과 [표 7]에서 보듯이 51.2%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고 영어 코퍼스에서도 가장 높았다.

한국어와 영어에서 모두 '분다'라는 동사랑 연관된 부사를 사용할 때 '세기'관련 부사를 가장 흔하게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 6]에서 수치로 표현된 부사의 타입별 결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부사 타입별 분석



한글색인에서는 '분다'동사와 연계된 부사의 사용이 '온도', '세기', '느낌', '시간' 부사로 그 비중은 다르지만 네 부분에서 모두 발견되었다. 하지만 영어 코퍼스 추출결과를 살펴보면 '세기'와 '시간' 말고는 나머지 '온도', '느낌'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은 매우 특이하다. 빈도 14회와 타입 수가 7개라는 사실은 수집된 한글 타입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어째서 영어에선 이렇게 부사가 적게 나타난 것일까? 앞에서 살펴본 명사-동사 관계에서처럼 한국어와 영어의 표현방식의 차이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ex 1) English : There is a strong wind outside.

한국어 : 바깥에 강한 바람이 분다. (a)

: 바깥에 바람이 강하게 분다. (b)

위의 문장에서 strong의 품사는 한글 직역에서는 (a)처럼 형용사이지만 자연스러운 한글해석과정에서는 (b)처럼 부사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사 빈도수 계수를 할 때 위의 문장 같은 경우 strong은 형용사로 세었지만 실제 우리말에선 부사로 번역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코퍼스 부사 숫자가 적게 수집된 것이다.

영어는 명사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명사 앞에 형용사를 붙임으로써, 또는 전치사를 결합시킴으로써 우리말의 부사를 표현한다. 전치사를 결합시키는 예를 하나 더 살펴보자.

ex2) English : Please handle these items with care.

한국어 : 이 물건들을 조심성을 가지고 취급하세요. (c)

: 이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취급하세요. (d)

위의 문장에서 with care는 한글 직역에서는 (c)처럼 명사이지만 자연스러운 한글해석과정에서는 (d)처럼 부사로 해석된다.

이상의 두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이 작문 교육을 할 때 우리말의 부사가 영어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하나는 명사 앞에 놓이는 형용사로 또는 명사 앞에 전치사를 결합함으로써 표현될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왜 단독 부사의 출현 빈도수가 한국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글색인(KAIST Concordancer)에 명사 '바람'을 입력해 얻은 형용사, 명사, 동사, 부사의 언어관계 결과를 영어 코퍼스에 'wind'를 입력해 얻은 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한국어와 영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연구과제 한글색인(KAIST Concordancer)에서 검색한 '바람'이라는 명사가 이루는 언어관계를 영어 코퍼스 속에서의 'wind' 명사가 이루는 언어관계와 비교할 때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품사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형용사-명사 결과를 살펴보면, 형용사의 영어 빈도수는 한국어보다 적게 나타났지만 타입의 수는 오히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세기 형용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온도와 느낌 형용사는 한국어와 영어에서 타입수가 같았지만 세기 형용사는 영어가 훨씬 많아서 한국학생들이 영한 작문시 겪게 될 어려움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 느낌 형용사 부분에서는 가장 문학적인 어휘들이 많았으며 같은 '바람'이라는 자연 현상을 바라보는 한국인과 영어권 화자 간의 시각 차이를 통해서 두 언어 간 존재하는 정서적 사고방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명사-명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영 간 빈도수 차이는 컸지만 타입수에 큰 차이가 없었다. 영어에서는 'wind'와 함께 쓰이는 명사들이 크게 계

절, 방향, 시간관련 명사들로 한정되었다. 계절, 방향, 시간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어 명사들인 '세기', '기타' 명사들은 영어에서 분사+전치사구, 철자가 다른 명사, 부사 등으로 표현되었다. 명사가 바뀌어서 표현되는 경우에서 코퍼스 자료가 가지는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모국어화자들조차도 모르는 상당수 어휘가 모국어 내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명사-동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영 간 빈도수 차이는 매우 컸지만 타입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명사-동사 간 결합은 형용사-명사 결합보다는 동사를 사용하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지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한국어의 동사가 영어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하나의 한국어 동사 표현이 영어의 다수 동사로 표현되는 경우, be+형용사+명사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었다.

동사-부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사는 명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부사추출은 한국어 명사 '바람'과 가장 다빈도 결합동사인 '분다'를 고정해 놓고 진행되었다. 검출 부사를 '온도', '세기', '느낌', '시간'으로 구분해서 분석하였고, 부사의 결합력은 형용사 보다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와 영어 모두 '세기'부사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영어 부사 검출수가 적은 것은 한국어의 부사가 영어에서는 명사 앞 형용사의 형태로, 전치사 뒤 명사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2. 제언

훌륭한 영작문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로 적힌 글을 많이 접함으로써 어휘력을 키워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여기서 필요한 어휘력이란 명사를 중심으로 연계된 연어능력을 말한다. 연어능력 신장을 통해서 한층 발전된 영작문 교육이 가능해진다.

학교 교육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는 흥미위주의 주제별 글쓰기는 어려운 어휘에 대한 회피전략으로 인하여 사실상 연어능력의 신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영어원문 코퍼스 분석에서 나온 영어 다빈도어가 무조건 중요하다는 식의 결론 보다는 영작문 교육 시 한국어 어휘를 기준으로 한국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에 대응하는 영어표현을 교사가 먼저 고민하고 연구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코퍼스 기반 영작문 교육에서는 코퍼스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는 교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요구되어진다. 그리고 영어대응표현들을 교사들이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한영 코퍼스 활용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영어 글쓰기 교육 시 교사는 한국인으로서의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말의 고급스러움에 근거해 영어대응표현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 한국식 영어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말 선호 어휘를 먼저 알고 그 어휘에 최대한 근접한 영어표현을 찾아서 가르치자는 것이다. 근접한 영어대응표현이 존재한다면 설령 그 표현이 빈도 면에서 첫 번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표현 사용에는 별무리가 없다. 코퍼스가 가지는 가장 큰 오류중 하나는 빈도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다. 우리의 영어가 원어민 화자들이 구사하는 영어와 완전히 똑같은 필요는 없다.

참고 문헌

- 김낙복. (2008).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의 코퍼스 언어학적 어휘 비교 분석.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4), 201-221.
- 김영미, 서진희. (2006). 코퍼스를 통한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의 어휘 분석.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2(4), 139-157.
- 김용진. (2007). 한국과 미국의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적 음상: 코퍼스언어학적 접근.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5(1).
- 김해연. (2008). 한국어코퍼스에 나타난 '얼굴/낯'의 담화인지적 분석. *담화인지언어학회 제30회 정기학술대회*.
- 고광윤, 박정준. (2007). 중학교 영어 교과서의 어휘적 연계성에 대한 코퍼스 바탕 연구.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4, 27-45.
- 고광윤, 백주현. (2010). 한국 대입영어시험 어휘의 코퍼스 분석.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6.2, 1-26.
- 고광윤, 이성운. (2008). 한국 영자신문 영어의 코퍼스 바탕 연구.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23.4, 601-619.
- 권인숙. (2004). 한국 중학교 6차 및 7차 교육과정 영어교과서의 코퍼스 언어학적 어휘 비교 분석. *Foreign Language Education*, 11(1), 211-251.
- 권혁승. (2008). 코퍼스 언어학의 실제 및 응용.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Vol.24, No.3.

- 민덕기, 김소라, 김규화. (2010). 아동용 영자 신문 활용 코퍼스 기반 영어 연어집 개발에 관한 연구.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3(1), 173-200.
- 전문기, 임인재. (2010).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읽기 자료의 코퍼스 언어학적 비교 분석.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7(1), 209-233.
- 이문복. (2009). 온라인 코퍼스 활용을 통한 영어교사의 영어 쓰기 효과 연구.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Vol 14, No. 2.
- 이정민, 김영주. (2010).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력과 언어 능력의 상관관계 연구.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Vol.26, No.2, June, 2010.
- 이윤경. (2009). 코퍼스 기반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 연구.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7(2), 131-155.
- 이은주. (2009). 한국인 영어 학습자 코퍼스를 활용한 정형화된 연결어구 분석.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6(2), 321-340.
- Biber, D., Conrad, S., & Reppen, R. (1998). *Corpus linguistics: Investigating language structure and u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wn, H. D. (2001).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Longman.
- Hill, J. (2000). Collocational Competence. *English Teaching Professional*, 11, 3-6.
- Hoey, M. (1991). *Patterns of lexis in a text*. Oxford: Oxford University.
- Lewis M. (1997). Pedagogical implications of the lexical approach. In J. Coady & T. Huckin (Eds), *Second language vocabulary*

- acquisition*. Cambridge: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 255–270.
- Min, Deok Gi, Kim, So Ra & Kim, Kyu Hwa.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corpus-based collocation book using children's English newspapers.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13(1). 173–200.
- O'Keeffe, A., McCarthy, M., & Carter, R. (2007). *From corpus to classroom: Language use and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 J. C. (1976). The role of vocabulary teaching. *TESOL Quarterly*, 10(1), 77–99.
- Sinclair, J. M. 1991. English lexical collocation. *Cahiers de Lexicology* 24, 15–16.
- Stanovich, K. E. (1986). Matthew effects in reading: Some consequenc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acquisition of literacy. *Reading Research Quarterly*, 21, 360–407.
- Thurstun, J., & Candlin, C. (1998). Concordancing and the teaching of the vocabulary of academic English.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7(3), 267–280.
- Yoon, Hyunsook. (2005). Corpus-based studies in L2 teaching: Some implications for an EFL context. *English Teaching*, 60(2), 285–305.